

제3회 야단법석 토론 및 이모저모

대승의 뜻 바로 펼치는 수행 필요

“밤을 만나면 밥을 먹고 차를 만나면 차를 마신다. 천 경, 만 경이지만 사해가 한 집이로다. 모두가 인연 따라 얻어지는 것이나, 얻어지지 않는 것도 인연이다. 얻어지고 얻어지지 않는 일이며! 본인은 자연인 줄 깨닫으니 빛속에 밝은 달을 구경하고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스님들을 대신한 조계종 원로위원 암도 스님의 법어를 시작으로 야단법석은 시작됐다.

여름 태양은 뜨거웠다. 8월 4일 전남 장성 고불총림 백양사는 산사의 풍경소리마저 더위에 묻힌 듯 했다. 오후 12시, 목직한 더위를 뚫고 참사람 교육관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들었다. ‘수행결과와 스승을 찾아 떠나는 길’을 주제로 4일간 진행될 야단법석에 참가하는 이들이었다.

백양사 야단법석은 2009년 8월 실상사에서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 같은 해 11월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진행됐던 야단법석에 이어 3번째 마련된 자리였다.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한국불교는 조선불교의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53년 조계종은 정화 60년이 지났지만 건강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을 주제법문으로 첫 법석이 열렸다. 이튿날인 5일에는 양산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이 <율장>에 담긴 수행결과를, 함양 향복마를 회주 용타 스님이 <금강경>에 담

긴 수행결과를 강연했다. 6일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생명평화경>에 담긴 수행결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이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과의 의미’를 강연했다.

수행결과는 생활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는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국불교가 대승불교를 표방하면서 소승불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스님들은 “대승불교의 수행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법 스님은 대승불교를 ‘부지깡이 수행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스님은 “부지깡이는 아궁이에 있는 다른 나무가 잘 타도록 열심히 노력한 후 자신도 타고 없어진다. 부지깡이를 갖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

· 슬픔 · 미움 · 화 등을 잘 치우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 쓰고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내 마음도 치유된다. 또한 부지깡이가 타고 사라지는 것이 열반과 같다. 그들을 위해서 지극하게 마음 쓰고 노력하는 것이 나의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탁월한 길이며 이것이 곧 자타가 동시에 성불하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3박 4일간 야단법석 청규에 따라 생활했다. 법석은 아침과 점심 3시간 자유시간을 빼 놓고 저녁 9시까지 진행됐다. 무더위에 빠듯한 일정이었음에도 사람들은 지치지 않았다. 법석에 참여하는 일 외에도 예불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공양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등 산사의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했다.



스님들과 토론의 시간을 갖은 참가자들의 모습



백양사 야단법석이 8월 4~7일 진행됐다. 무더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더위를 잊은 듯, 큰스님들의 법문을 경청했다.

참가자는 전 회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참가자들 간 친분을 쌓고 대화를 나눌 기회는 더욱 많았다. 백양사를 둘러싼 백암산 절경과 맑은 공기를 마시고, 큰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다.

6일 저녁부터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대승불교에 속하는 한국불교의 기복적인 수행, 개인 수행에 그치는데 대한 자성과 사부대중의 수행결과에 뜻을 모았다.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은 토론에서 “승가는 비구 · 비구니 · 우바세 · 우바이 사부대중을 통칭해서 쓴다. 초기 불교에서 출세자로 우열을 따지지 않았다”며 사부대중이 함께할 때 불교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향봉 스님은 “소승경전이 출가자를 위한 경전이려면 대승경전은 재가자를 위한 경

참가자 줄어도 대화의 시간은 늘어 대승불교의 사회적 역할 더욱 커져 참여 불교, 사회에 회향하는 불교 불교의 재가자 참여·역할 강조해

전”이라며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불교에서 재가자의 역할과 참여, 바른 수행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불자들의 수도적인 자세나 기복, 위계질서에 따른 수행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기계적인 법문과 종교의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했다. 향봉 스님은 “형식적인 기도에 연연하지 말라. 못 먹고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보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조상에 대한 예우가 된다”고 말했다.

“승려가 되면 존경과 예배, 공양의 대상이 되고 신도들이 하나같이 공양 올리는 것이 잘못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하라. 집착하지 말고 것 말속에 비추어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반추하는 성찰이 중요하다. 나 자신을 무한한 능력을 지닌 사람임을 알라. 묵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부처님에게 10번이라도 위대하다고 기도하라. 나에게서 무한한 능력이 있다. 당당하고 여유롭고 마음이 열린 된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당당하라.”

향봉 스님의 주장이었다.



진행을 맡은 인례사 혜일 스님

7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도 자기중심적인 수행에만 그친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모두가 참여하는 불교, 사회에 회향하는 불교”를 강조했다. 시몽 스님은 한국불교가 대승불교라면 대승불교의 면모를 갖추어 발전해 나가야 함을 지적했다. 스님은 “승려들은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수행하고, 재가자들은 절에서 불공이나 제를 지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똑같은 불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문화가 불교계 내부의 자성을 통해 쇠신할 것을 주문했다.

시몽 스님도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승가가 이뤄질 때 한국 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주장했다.

“스님들만 불교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할 때 불교는 물론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부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찰에서 스님과 신도는 모두 개인 수행과 기도를 할 뿐 연결 고리는 없었다. 한국불교 전체를 일순간에 바꾸려는 것 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곳,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데부터 불교의 발전은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토론과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참가자 수가 저조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다. 야단법석 1회부터 빠지지 않고 참가한 한길로 씨는 “좋은 법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문을 이해하고 소화하기 어렵다는 이

들도 있었다. 김용유 씨는 “좋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니 좋기도 한데 거리가 좀 멀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주희 씨도 “식견이 짧아 법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나머지는 숙제로 가져 가겠다”고 평가했다.

박종근 익산불교신도회장은 “실천하지 못하는 불법이 아닌 집이나 직장 어디에서든 실천 할 수 있는 불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가철을 맞아 여유를 찾아 온 참가자들에게 주제는 멀게만 느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진부한 주제, 재가자들에게 관심과 이목을 끌지 못하는 주제가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참가자 중에는 대부분 재가자인 점도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승가와 재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젊은 불자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이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석을 펼친 스님과 참가자들 대부분은 4차 야단법석을 기대했다. “다음 야단법석에는 도반 한 명을 꼭 데리고 오겠다.” “집에 가서 야단법석에 대한 후기를 인터넷에 올려 홍보하고,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향봉 스님은 “4차 야단법석에서는 성철 스님의 오매일여 사상의 비판을 내용으로 법석을 열겠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특별취재팀 글=이상민·이니은·이은정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진=박재완 기자

배부른 돼지나라, 천(賤)한 나라, 낫빠진 나라, 불쌍하고 불행한 대한민국!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책을 읽을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세계일등 도덕 강국과 세계일등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국민상 정립 (國民像 定立)
중심이 없는 국민사회가 학교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우리의 국민두뇌가 <최고>의 자리로 인정 (책자 1장 65면) 받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인정적 특장(人稱的 特長)이 <최고도>의 업무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정밀실험의 결과와 증거행동들이 구체적으로 검증 (책자1장 57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부(天賦)의 자질을 <일등나라의 창조>를 가능케 할 유력한 척도가 되며 ‘일등나라의 모습이 곧 우리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인식을 촉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최고’가 ‘최고’가 아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일인당 국민소득(GNP)이 OECD국가(33개국)의 평균치(3만달러)에도 못미쳐 십수년째 2만달러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며 타고난 ‘최고’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지는 이미 20년에 가까운데(한계에 봉착) 아직도 그 문턱 밑을 맴돌며 그 지나간 세월간에 몇푼이나 건진다고 무슨 큰 대외나 있으면 눈이 벌개 유지하느라고 장 세월을 국력을 쏟아붓는 등 각종 합리화된 모리정지 불이에 국민의 뉘를 팔아 왔으며 실속없는 국민들은 배부른 돼지들이 되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으니 이것도 ‘최고’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를 방해하는 우리의 국민풍토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살면 손해’라는 역리(逆理)에 익숙해진 국민들, 드러나지 않는 비리(非理)가 지배하는 사회, 부패한 국민상(OECD 국가 중 반부패지수 최하위)이 아니라 일등 국격을, 일등 희망을, 일등의 최선을 결코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천부의 잠재력, 최고의 두뇌력과 최고의 인정력(人情力)을 최대(완벽) 적용하는 학교교육(경교육)실천에 의해

<자율도덕력을 완성>하여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밝힘- 특히 27면 ~ 36면의 교실교육 실행에서 방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 이와함께 최고의 교육을 위한 병행 조건으로서 국민상(國民像)을 교육하는 문제는 시급합니다.
국민의 정통가치관(국민상-한국사의 대동맥을 상징하고 국가의 척추가 될 기본가치관), 즉, 국민의 중심성(기준척도)을 정립함으로써 이나라의 오염된 온갖 선한 가치관들이 오용의 탈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며 좌파, 우파 등 분단과 대립상을 창조해온 정치 주도의 가치관 유린시대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논함)

이제 세계경제, 과학문명을 제패하는 창의력과 일등 복지사회의 모범을 함께 일으키게 할 우리의 위대한 국민상(國民像)이 바로 우리 학생들 가슴속에 잠자고 있음을 깨우쳐야 할 필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믿어 소승은 신분의 틀을 넘어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완성을 통한 국민상 정립을 완성하는 공사(公事)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사람에겐 교육의 문제가 우선합니다. 사회는 교육의 소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교육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국민이 장차 크게 아플것입니다. 일등민주를 요구하는 일등 국민두뇌의 불만은 깊어지고 중심(中心)없는 비도(非道)의 국심(國心)은 배신의 그늘에 안주하여 마침내 우리는 혼돈의 나라에서 대망(大望)의 확신을 잃은 국운을 분노와 후회의 시선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창의(創意)가 세계의 국민 정신문화와 세계의 경제, 과학 문명을 선도(先導) 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절망에 빠진 우국(憂國)의 교육지사(教育志士-교육을 뜻을 둔 각계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삼가 소승의 학교교육 현장 경험에서 얻은

치열한 번뇌로 쓴 책자 ‘無門에 피는 꽃’(학교교육 혁명서)은 세계 일등국을 실현하는 국민교육의 정도(正道)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강대국의 위협속에 국가의 미래를 우려하는, 학교교육에 뜻을 둔, 원하시는 국민 부처님들께 무상(무로 = 택배비 포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大韓沙門 慧岩 승裳
기도처 : 경기도 포천시 신동읍 295-13(호봉골길 2번지) 정혜사
전 화 : 031) 536-1010, 휴대폰 : 010-4327-2134



• 제목 : 無門에 피는 꽃
• 저자 : 慧岩 (俗名 : 吉炳德)
• 규격 : 26cm x 19cm, 총 270면, 비매품
• 정규고등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교실에서 시작되는 교육 혁명서입니다.

• 최고의 교육은 최고의 시설에 있지 않으며 그 생명력은 최고의 교육내용에 있습니다. 국민상 교육(國民像教育)의 토대위에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실현하는 세계최고의 고등학교를 설립하십시오(설립이사장, 설립이사, 설립추진위원, 설립후원사, 설립후원회원)를 구하는 광고입니다.
소승의 역할은 설립이후(3년 이내에 최고의 교육성과를 거두는 책임)이 전부입니다. (책자 내용 참조)